

보도자료, 그 믿지 못할 수사학

‘현대는 자기 PR시대’라고 했다. 자기 자랑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자기 자랑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말은 당연하다.

출판사도 자신의 자랑은 알아서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돈을 주고 신문의 지면을 빌리거나, 15초·20초의 TV광고를 잘하라는 것은 아니다. 몇몇 출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도자료’라는 문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보도자료의 양식을 보면 판형, 저자소개, 축약한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간지 기사를 복사해서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예도 적지 않다.

보도자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책을 소개해

달라’는 대언론적인 소박한 뜻일 게다. 하지만 제목만 보도자료지, 결국 보도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들 또한 적지 않다. 책 머리말이나 서문 만큼도 못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다.

이런 마당에 자사가 발간한 도서가 갖는 성격을 명시해준다거나, 자사 도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책을 소개해 주는 예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보도자료는 단지 “이 책을 읽어달라” “이 책을 보도해달라”는 추상적인 단언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보도자료에서 “탁월한” “최초의~” “흥미진진한” 등의 수사학이 없어도 독자는 읽으면서 느

낀다. 없어도 될 말인 것이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원칙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의 내용과 동떨어진 보도자료는 적어도 씌어지지 말아야 한다. 책의 뜻에 걸맞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 출판관계자는 작지만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전문구와 보도자료는 엄연히 다르다. 선전문구가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팔기 위한 글이라면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자료’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출판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면 자신들이 책을 발간하게 된 목적을 비롯해서, 책의 내용, 감상법, 차후에 나올 책의 성격까지를 명시해 주고 있었다. 거의 서평수준까지 다다른 이러한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리 보도자료가 단순히 ‘보도용’으로 못박힐지라도 결국에는 독자가 마지막으로 이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이성수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중세의 지식인들」 「또 다른 중세를 위하여」 등을 펴낸 프랑스의心性史學者인 자크 르 고프의 저서 「서양 중세 문명」(유희수 옮김, 문학고지성사)은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대중들의 망탈리테를 연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학에 중점을 둔 책. 아날학파의 제2세대인 저자는 중세의 삶의 실재를 전쟁이나 사건의 역사에서가 아닌 지배계급과 농민, 종교와 과학, 기술과 자연, 영혼과 꿈 등에서 추출하려는 의지를 이 책에서 보여준다. 그 중에는 당시의 책과 관련된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 발췌 소개한다.

오랫동안 중세서양에서는 아무도 기술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쓸 만한 가치가 없거나 전수해서는 안되는 비결에 속했기 때문이다. 12세기 초 독일 수도승 테오필루스가 중세 최초의 기술개론으로 간주되는 「여러기술론」을 썼을 때 그는 장인과 예술가들을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기술자의 솜씨가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13세기 농업에 관한 저작들이나 집사들의 임무에 관한 저작들은 아직까지도 실용적 조인을 실은 작품들에 불과했다. 로마 농학자들의 전통이 혁신되려면 14세기 초 볼로네 피에트로 데 크레센

치의 「농민적 편지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책들이라고 하는 것도 잡다한 지식을, 때로는 사이버 과학적인 지식을 모은 것에 불과하여 기술사의 사료적 가치도 거의 없다. 예컨대, 장 드 가를랑드의 사전이라든지 알렉산드르 네카의 「도구 명칭론」이라든지, 대현 알베르의 「식물론」이라든지, 그리고 1240년경 링컨 백작 부인을 위해 썼던 로버트 그로세스트의 「지력 유지 방법」 등이 그런 것이다.

「부활하고 있던」 회화의 주제인 모든 승리들 중에서 그 첫번째가 죽음에 대한 승리이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감정의 전파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세속신분들」의 최후적 형태인 「사자의 춤」보다도 인쇄술이었다. 새로운 감수성에 대한 모든 주제들이 1465년 라인강 연안지방, 아마도 쾰른에서 등장한 「임종의 방법」에서 발견된다. 그것이 목판 인쇄되어 매우 널리 보급되었다. 그것이 독일과 저지대에서도부터 1480년 경에는 스페인과 프랑스로, 16세기 초에는 영국과 이탈리아로 보급되었다.

인쇄술, 그것은 혁명적이고 위대한 발명이었다. 물론 이것은 기나긴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전통적 이데올로

기와 감수성에 이바지했다(신앙에 관한 책들, 특히 성경이 많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대중들이 ‘모든 원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쇄술은 글을 모르는 민중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림에 의한 교육형태를 약화 내지는 퇴보시키면서 초기에는 문화의 사회적 위축을 가져오기도 했다.

중세의 동물학은 「우화집」에서의 그것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씌어져 5세기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작품으로서, 동물학을 우화와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한 시의 형태로 용해시켜 버렸다. 동물들은 상징들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세의 동물우화집은 이 같은 상징들에서 유래했으며, 또한 동물에 대한 중세적 감수성도 과학적 무지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왔다. 특히 수사학자들과 편집자들은 중세인들에게 단편화된 지식을 제공했다. 로마제국말기는 기본적인 지적 정신적 기재로서의 어휘들이며 기억에 용이한 시구들이며 (가짜) 어원들이며 문집 등을 중세에 전달 해주었다. 그것은 인용과 단편적 선별 등 ‘요약’의 문화이다.

또한 중세문화의 기독교적 측면에서도 사정은 이와 다를 바 없었다. 기독교 교의는 무엇보다도 본질

적으로 성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서」는 모든 중세문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성서원전과 해독자 사이에는 이중적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원전은 난해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그것은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고 신비적이었기 때문에 그 함축하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 차원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부터 일련의 온갖 단서들, 주석들과 용어해설들이 번성하게 되고, 원전은 이것들 뒤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원전은 주석 앞에 굴복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원전을 되찾자는 당연한 감정의 표출일 것이다.

교부들 자체가 일차자료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스로 성경원전의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중세 기독교사상의 참된 출처는 제3류 또는 제4류의 논저들과 시들이다. 예컨대, 역사를 통속적 호교론으로 변형시킨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이자 친구인 오로시우스의 「이교도 투쟁사」라든지, 도덕적 삶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해석한 아우렐리우스 프루덴티우스 클레멘스의 「삶을 위한 투쟁」이라든지, 세속세계와 세속적 활동에 대한 경멸을 갈파한 줄리아누스 포메리우스의 「명상생활론」 등이 그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124호 / 1993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鏞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旻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林明淳 朴星昊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鍾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景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曠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林亨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鍾鍾 鄭雲映 鄭晉錫
鄭鏞弘 曹南鉉 曹大鉉 崔輝康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부터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포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